생명의 삶 + PLUS

나눔식 소그룹

01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복음(고전 2:1~9)

02 청지기의 자세(고전 4:1~8)

03 사랑이 기준이다(고전 8:1~13)

04 주님을 기념하는 거룩한 모임(고전 11:17~26)

알려드립니다

나눔식 소그룹 매뉴얼은 금요일을 기준으로 그 주간의 주일~목요일 중 하루의 본문으로 집필되었습니다. 「생명의 삶」과 같은 본문으로 되어 있으며, 「생명의 삶+PLUS」에서는 지도자들을 위한 해설을 추가해서 싣고 있습니다. 교회별로 소그룹 모임에서 「생명의 삶」을 교재로 삼고, 「생명의 삶+PLUS」의 소그룹 매뉴얼을 강의안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책에 실린 지도자를 위한 해설은 「생명의 삶」 홈페이지(www.duranno.com/qt)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1

고린도전서 2:1~9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복음

하나님 찬양하기

예수님은 누구신가 (새 96, F) 완전하신 나의 주 (경배와 찬양, F)

Focus |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감추어진 신비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 열기 한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인도자를 위한 예화 초기 한국 교회 기록을 살펴보면 엄귀현(1876~1951)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경동제일교회 영수 엄귀현'입니다. '영수'는 초기 한국 교회의 직분인데, 교회 청소부터 행정까지, 심지어 설교자가 없을 때는 설교까지 교회 전반적인 일을 모두 맡아서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엄귀현은 당시 양반을 모시는 마부였습니다. 배운 것 없는 천민으로, 양반이 타는 말을 모는 사람이었습니다. 엄귀현이 모셨던 양반은 왕가 출신의 이재형(1871~1947)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재형은 왕손 이재황(고종)보다 먼저 태어났다면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으로 이재형이 말을 걸지 않으면 엄귀현은 말조차 붙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재형이 엄귀현에게 이것저것을 묻게 되었는데, 뜬금없이 엄귀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리, 황송하오나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소서. 그래야 나리도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재형은 처음에는 화를 버럭 냈지만, 이후 엄귀현의 말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왕가 출신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천대받던 마부의 어수룩한 복음의 메시지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어수룩하고 투박한 말이지만, 듣고서 크게 감동과 감화를 받은 경험이 있나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고린도전서 2:1~9**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2차 전도 여행 중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에 도착해 빌립보 지역과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를 세운 후, 베뢰아와 아테네 지역을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행 16:11~18:1). 바울은 습관대로 고린도에 있는 한 회당을 찾아가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회당 옆 한 이방인 가정으로 장소를 옮겨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행 18:4~7). 그 결과 유대인 회당장이 복음을 듣고 회심해 그의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

고 세례를 받아 성도가 되었습니다(행 18:8). 바울은 많은 위협 속에서도 약 18개월간 고린도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체류하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는 지도자에 따라 나누어진 계파(1장), 부도덕한 모습(5~6장),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인한 분열(8~11장), 빈부의 차이에 따른 분열(11장), 은사에 따른 분열(12장) 등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과 교훈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은 십자가와 복음임을 담대히 선포합니다(1~2장).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한편 그가 알고자 작정한 것은 무엇인가요?(1~2절)**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해설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웅변가가 많았습니다.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갖춘 이들이 그들의 지적 풍요로움을 가지고 토론하고 웅변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도시를 방문할 때면 화려하고 유려한 말로 그 도시를 높이고, 그런 웅변으로 자신의 업적과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화려한 말로 자신의 업적이나 지혜를 자랑함으로써 명예와 권력과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아덴에서는 자신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사람의 지혜로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경험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2절). 청중을 설득하기 위한 수사학적 기술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의 웅변 실력이 그다지 좋지 않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고백합니다(3절). 이 같은 부족함으로 인해 바울은 더욱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 능력의 강함을 드러내 보이기로 작정했습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수사학이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증거들을 전했습니다.

적용과 나눔 지혜와 화려함으로 꾸며진 말이 아닌, 단순하고 투박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도전받은 경험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 보세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나,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나, 유명하고 명성 있는 사람을 통해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화려한 언변과 명성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은 빠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애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말을 하는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이끌기도 합니다. 아무리 청산유수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중심에 복음과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마치 기분만 좋게 하는 마약처럼 해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울려 퍼졌던 복음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단순하다 못해 투박했지만, 그 메시지가 가진 힘은 상상할 수 없는 부흥과 갱신을 가져왔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외침도 이와 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복음의 선명함은 말이나 지혜가 아닌 성령님의 역사로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찰과 묵상 **2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이 지혜를 몰랐던 세상 통치자들이 저지른 일은 무엇인가요?(6~8절)**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가리킵니다. 이 지혜를 몰랐던 세상의 통치자들은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해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십자가 복음은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십자가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온전한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6절), '온전한 자'(헬, 호 텔레이오스)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해되고 발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지혜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감추어진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바울은 만약 어떤 통치자가 지혜로 그 비밀을 알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처참히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8절).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복음이며, 십자가 복음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게 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7절). 이것이 바로 구원임을 바울은 선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인간의 지혜와 판단, 경험과 인식을 초월하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적용과 나눔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믿어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 일상에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나누어 보세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 고단한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허락되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양한 일로 인해 하루하루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영원히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기에 힘들지만 더 힘들어하지 않고, 고통스러워도 더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삶이 버겁

고 힘들지만 찬양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믿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평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만 발견되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 다지기

십자가 복음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요 3:16 참조). 또한 십자가 복음은 신비입니다. 화려한 언변과 다양한 지식으로는 이해하거나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발견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문자를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추어진 비밀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TIP 리더는 오늘 나눈 말씀이 기도로 마무리되도록 인도합니다. 아래 기도 제목을 1개 혹은 2개 모두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더 알아 가도록
- 온전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함으로써 매 순간 승리의 삶을 살도록

TIP 이렇게 구성원들과 한목소리로 기도한 후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따라 읽으며 마무리하고, 중보기도(함께 기도하기)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어리석은 제게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게 베푸신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며 날마다 감격과 감사함으로 천국을 소망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1. 인터넷 이용이 잦아진 어린이들이 사이버 공간 내 괴롭힘, 디지털 성범죄 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아동 보호 정책이 잘 수립되고 실현되도록 기도합시다.

2. 예멘 내전이 7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반군은 전쟁 최전선에 소년병을 배치해 인간 방패로 삼고 있습니다. 예멘의 평화와 아동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합시다.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마음에 새기기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전 2:5

02

고린도전서 4:1~8

청지기의 자세

하나님 찬양하기

예수 따라가며 (새 449, F)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경배와 찬양, F)

Focus | 청지기는 맡겨진 사명을 겸손한 태도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인도자를 위한 예화 앤드루 카네기(Andrew Cannegie, 1835~1919)는 강철왕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카네기가 늙어서 회사를 후계자에게 넘겨줄 때가 되자 '과연 누가 카네기의 후계자가 될까?'라는 질문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카네기의 후계자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카네기가 지명한 후계자는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기에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카네기는 쉬브라는 사람을 자신의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는 잘 알려진 사람도 아니었고,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카네기의 회사에 청소부로 입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많은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카네기의 후계자로 지목된 이유는 회사를 향한 충성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청소부로 입사한 쉬브는 자신에게 할당된 구역뿐만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구석까지 열심히 청소하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좋게 본 간부들이 그를 정식 사원으로 채용했고, 더 나아가 카네기의 비서직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카네기의 후계자가 되어 회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의 충성심과 성실함은 회사의 주인인 카네기를 감동시켰고, 카네기는 아주 작은 일부터 충성한 그에게 큰일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을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감당했을 때 느꼈던 기분은 어땠나요? 그때 받았던 칭찬이 있나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고린도전서 4:1~8**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고린도 지역은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큰 항구 상업 도시였습니다. 대부분 항구 도시가 그렇듯이 고린도 지역 역시 다양한 문화가 혼재했습니다. 그리스-로마의 만신 숭배 사상, 지식층이 향유하던 여러 갈래의 철학적 종교 등이 다양하게 존재했습니다. 또한 물질문명의 부정적인 발달로 인해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매우 저급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지

역적 특성에 따라 고린도 교회 역시 다양한 문화와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한 분열로 교회가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판단 기준이 각각 다르다 보니 교회 구성원들의 하나 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해 들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6장 20절까지 상당히 긴 분량을 할애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 권면을 이어 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장 10절부터 4장 21절에서는 교회 안에 야기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5장 1절부터 6장 20절에서는 성적 타락을 비롯한 윤리적 타락에 대해 권면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행위가 복음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경고하고, 그들이 제기한 문제에 답합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품성이 무엇이라고 했나요?(1~2절)**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해설 고린도 성도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사신 바 된 이들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분열합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의 일꾼, 곧 복음을 위해 세움 받은 성도는 판단과 정죄와 분열과 갈등을 버리고,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며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꾼'(1절)으로 번역된 헬라어 '휘페레테스'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일꾼은 상관의 명령에 순종해 노를 저어야 하는 사람임을 의도적으로 드러냅니다. 절대 복종과 절대 순종만 있을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맡은 자'(2절)로 번역된 헬라어 '오이코노모스'는 '한 집안의 사무를 관장하는 자', 곧 '청지기'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 마땅히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은 충성입니다. 자기 생각과 주장과 가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명자로서 오직 충성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적용과 나눔 청지기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청지기'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청지기의 임무를 감당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돈과 시간과 명예와 권력, 더 나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청지기인 우리의 역할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마치 나의 것인 듯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 행한다면 그것은 청지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때 우리가

청지기직을 잘 감당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것에 대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청지기로서 충성스럽게 지키고 관리해야 할 마땅한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청지기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관찰과묵상 **2 바울은 분열과 갈등 가운데 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엇을 그만두라고 권면했나요?(3~5절)**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서로를 향해서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해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한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서로를 판단하는 행위에 있음을 지적하며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5절)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주요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4절). 사람의 판단은 온전하지도 완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서로를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서로를 향한 판단은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기보다는 상처와 아픔 그리고 분열과 갈등을 가져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서로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남을 향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교만함에서 말미암습니다(6절). 교만함으로 서로를 대적하는 것은 말씀 밖으로 넘어간 것으로(6절),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6절의 '서로 대적하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하나는 위로 올리고 다른 하나는 아래로 낮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다른 사람은 깎아 내리는 행위가 만연했습니다. 그것은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들로 인해 당파를 짓고, 분열이 생기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임을 반복해서 강조하며 그릇된 행위에서 벗어날 것을 권면합니다.

적용과나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적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적용과나눔포인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 죄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만이 심판주 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때 심판주가 되시고, 사람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교만의 증거입니다. 교만은 분명히 죄입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을 버려야 판단과 정죄를 멈출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빌 2:3). 잠언의 지혜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잠 16:18). 겸손함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할 때 교만함을 버릴 수 있고,

교만함을 버림으로써 판단과 정죄가 아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정죄함과 교만함을 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잘못된 습관이 자리잡았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게 해 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 다지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인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과 겸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요 종으로서, 하나님이 맡겨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교만하게 자기 의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겸손히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TIP 리더는 오늘 나눈 말씀이 기도로 마무리되도록 인도합니다. 아래 기도 제목을 1개 혹은 2개 모두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늘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날마다 겸손히 행하도록

TIP 이렇게 구성원들과 한목소리로 기도한 후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따라 읽으며 마무리하고, 중보기도(함께 기도하기)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청지기로서 충성과 겸손을 겸비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1.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치매 노인 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완치 가능한 치료제 개발과 치매 환자를 위한 사회 복지 구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2. 기독교 탄압이 극심한 북한에서 지하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접하는 주민이 늘고 있습니다. 북녘땅에 평양 대부흥 운동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도록 기도합시다.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마음에 새기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전 4:1~2

03

사랑이 기준이다

고린도전서 8:1~13

하나님 찬양하기

사랑하는 주님 앞에 (새 220, E♭→D) 주님 말씀하시면 (경배와 찬양, D)

Focus |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희생과 포기의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인도자를 위한 예화 1912년 32살의 나이로 우리나라에 온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 서서평(Elisabeth J. Shepping)은 평생을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분입니다. 한번 전도를 떠나면 말을 타고 270킬로미터 이상을 순회할 만큼 열정적으로 가난하고 병든 이웃과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조선간호부협회를 설립하고, 이일학교라는 한국 최초의 여성 신학교를 설립한 서서평 선교사는 1934년 5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홉뿐이었습니다. 한 장뿐이던 담요도 다리 밑 가난한 자들과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죽으면서 자신의 시신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해 달라고 유언했습니다. 그녀의 소식이 전해지자 수천 명에 이르는 광주 시민과 나병 환자가 몰려나와 '어머니'를 외치며 오열했다고 합니다. 남겨진 침대 머리맡에는 그녀의 신조였던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Not Success But Service)'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며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은 비단 선교사나 특별한 은사가 있는 자들에게 국한된 사명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을 내가 아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으로 생각한 적은 없었나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고린도전서 8:1~13**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는 고린도 성도들이 직면한 여러 문제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펠로폰네소스반도의 주요한 항구도시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던 고린도는 각종 우상의 신전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음란한 제사, 그리고 방탕한 문화가 성행하던 곳입니다. 특히 우상에게 바친 제물 중 일부는 바치는

자 혹은 신전의 제사장이나 관리들을 위해 남겨졌는데, 이는 잔치 음식에 사용되거나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되파는 용도로 취급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를 비롯한 그리스-로마 문화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리스도인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간접적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생겨났고, 이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대립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자유케 하신 믿음으로 음식을 먹었고, 어떤 이들은 그런 자들을 보면서 시험에 들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를 설명하는데, 8장에서는 사랑이 기준이 되는 일반 원칙을, 9장에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 사도의 권한을 포기했던 바울 삶의 예증을, 10장에서는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권면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적용을 보여 줍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우상의 제물에 대한 교훈에서 바울은 '지식'과 '사랑'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말했나요?(1절)**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해설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권고를 시작하면서 가장 큰 원칙을 제시합니다. 믿는 자들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의 지침으로 삼을 기준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과 대비되어 우상에 대한 '지식'이 제시되는데,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아무리 알아도 불충분한 지식을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에 관한 사람의 참지식을 말합니다. 지식은 쌓이면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교만의 도구가 됩니다. 반면에 사랑은 온전한 지식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향한 앎은 교만을 이루는 지식이 아닌, 사랑을 통한 개인적인 친밀함의 결과입니다. 또한 바울은 사랑의 결과로 '덕을 세운다'고 하는데, 여기서의 덕은 하나님의 신성(神性)이 성도들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지식에 앞서는 사랑의 우월성을 강조함으로써 바울은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를 풀어 갑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우상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을 설명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시기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거나 먹지 않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사랑함으로 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용과 나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을 내 삶에서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고 해서 모든 성경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인 이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성경 지식과 교리로 신앙생활을 분별하고, 가르치며, 배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인간적인 욕심과

죄 된 속성은 그 지식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 스스로 교만해지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 충족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도 안에서도 지식을 드러내며 서로 도전할 때보다 사랑을 중심으로 서로를 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 전제되어 지식이 겸비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습니다.

관찰과 묵상 **2 우상에 대한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를 망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10~11절)**

바울은 지식으로 멸망하게 하는 믿음이 약한 자도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에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해설 바울은 지식보다 사랑이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설명하면서 사랑의 유익을 여러 측면에서 다룹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고(1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합니다(3절).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상의 본질적인 차이를 아는 지식으로, 이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7절).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므로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담력을 얻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죄를 짓고 그 양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우상의 제물로부터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12절). 이 경우, 차라리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올바른 선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역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입니다(11절).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포기하시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셨다면, 믿음이 강한 자는 음식 먹을 권리를 포기할 만큼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당시에도 '우상을 멀리하라'는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행 15:19~20)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사랑의 원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적용과 나눔 믿음의 형제자매가 된 이들을 위해 내 권리를 포기한 적이 있나요?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희생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롬 13:10). 바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세상이 생각하는 사랑, 곧 이기적인 욕망의 성취와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을 자청하며, 낮은 곳에서 겸손히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견고해질수록 사랑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더욱 드러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

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이 사랑하신 형제자매와 이웃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을 돌아보고 신앙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준은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에 초점을 두어 자문해야 합니다.

말씀 다지기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 목회적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가장 큰 원칙을 고수합니다. 그것은 지식보다 귀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덕을 세울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냅니다. 연약한 이들도 사랑의 원리 아래서 보호를 받고 하나 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모든 은사를 시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랑'을 제시하며(12:31; 13장), 그 자신이 먼저 사랑의 본을 보였습니다.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TIP 리더는 오늘 나눈 말씀이 기도로 마무리되도록 인도합니다. 아래 기도 제목을 1개 혹은 2개 모두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 스스로 교만해지는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며 구원해 주신 이웃과 가족을 온전한 희생으로 사랑하도록

TIP 이렇게 구성원들과 한목소리로 기도한 후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따라 읽으며 마무리하고, 중보기도(함께 기도하기)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저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릇된 지식이 아니라, 자기 것을 희생하는 사랑의 섬김으로 주님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1. 사학법 개정으로 신규 교원 채용과 운영에 지방 정부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자율성 침해로 기독교 사학의 건학 이념 구현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2.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부다처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욕대로 행하던 이들이 거듭나,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본뜻을 깨닫고 따르길 기도합시다.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마음에 새기기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전 8:9

04

고린도전서 11:17~26

주님을 기념하는 거룩한 모임

하나님 찬양하기

여기에 모인 우리 (새 620, G) 다 표현 못 해도 나 표현하리라 (경배와 찬양, G)

Focus |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거룩함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인도자를 위한 예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매일 그 감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한 사람씩 예배당 앞으로 나가 큼직한 성찬 빵을 조금 뜯어서 잔에 담긴 포도즙을 찍어 먹는 방식으로 성찬을 진행했습니다. 생전 처음 성찬식에 참여한 그는 다른 성도들이 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윽고 그가 성찬에 참여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빵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예수님의 몸이 특별히 더 많이 찢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찬 빵을 크게 찢어서 포도즙을 듬뿍 묻혀 입에 넣었습니다. 한 입 한 입, 입 안 가득한 빵을 씹는 동안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주님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성찬식의 은혜를 잊지 못했던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했고, 훗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단지 한 문장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매일 그리스도인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하는 은혜의 진리이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매일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는 복음의 음성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린 적이 있나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고린도전서 11:17~26**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초대교회에서는 애찬과 성찬이 어우러진 거룩한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초대교부인 터툴리안은 이 식사가 지나칠 만큼 넉넉했으며, 사랑을 나누는 식사인 만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다소 큰 비용이 들어도 의미 있게 섬겼다고 기록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 식사

를 시작했으며,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식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으며, 성도가 하나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모습이 애찬에서 명확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빈부 격차와 신분의 차이가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식사에 여러 가지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이 문제를 엄중히 경고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모습과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설명하며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폐단은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220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애찬과 성만찬을 명확하게 분리하기에 이릅니다. 이어서 교회 내 제도로서 애찬을 아예 폐지하고, 성만찬만 남기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주님의 만찬을 기억하며 행하는 성만찬을 예전으로 두고 있지만, 성도의 교제와 하나 됨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의 거룩한 식사 전통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해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17~21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고, 먹을 때 자기 음식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써 어떤 이들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해설 초대교회에서 함께 나누었던 식사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적인 것이었습니다. '애찬'으로 불리며 성찬과 어우러져 진행되었던 이 시간은 성도들의 모임 중 중요한 순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점차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키며 오용했고, 결국 식사 중에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만찬이 유익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해로운 모임이 되어 버렸다며 강하게 질책합니다(17절). 그러면서 특히 파당 문제를 지적합니다(19절). 만찬 문제와 관련된 파당은 사회적, 경제적 형편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모여서 만찬을 나누는 날은 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낮에 일을 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낮에 일하지 않는 부유한 사람들이 준비된 음식을 먼저 가져다 먹는 바람에 가난한 이들이 도착했을 때는 그들을 위한 음식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 종종 벌어졌습니다(21절). 또한 좌석도 안쪽의 편한 자리는 먼저 온 자들의 공간이 되었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바깥 뜰 같은 공간에서 식사해야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라며 질문합니다(22절). 거룩한 신앙 안에서의 교제가 실천되는 식사 자리를 단순히 사교적인 연회 수준으로 생각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적용과 나눔 내가 속한 공동체는 모임을 진행할 때 연약한 이들을 배려하나요? 이번 주에 나는 누구를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까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교회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따르기보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치를 따르는 곳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의 모든 모임과 문화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로 자리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거룩함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찬의 자리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와 함께하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여러 계층의 다양한 사람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본성과 율법적인 태도를 고수한다면 사랑으로 벽을 허무신 예수님의 마음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예수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공동체를 이루고 성도를 대하는 제1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관찰과 묵상 **2 바울은 성찬과 관련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명하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을 전해야 한다고 했나요?(23~26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만찬에서 음식을 먼저 가져다 먹음으로써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상황을 질책하며, 그들을 칭찬하지 않는다고 직접적으로 말합니다(22절). 그런 후 '주께 받은 것'(23절), 곧 성찬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떡을 가지고 떼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24절).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습니다(25절).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가 성찬식을 행하는 성경적 근거가 됩니다. '행하여', '마실 때마다'라는 표현은 성찬에 늘 참여하는 것이 신적 명령이라는 것을 알려 줍니다. 그리고 '기념하라'는 적극적으로 생각해 내는 것을 의미하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기능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행할 때 음식이나 교제에 초점을 두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성찬의 의미를 상실한 만찬은 세상의 친교와 다르지 않았고, 죄 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성찬이 계속 되풀이되어야 할 이유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설명합니다.

적용과 나눔 기억에 남는 성찬식의 은혜가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성찬식에 참여할 때 나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할까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성찬은 행위로 전하는 설교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교회 내 모든 만찬에 성찬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찬이 예배 안에서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형식으로 변화되었지만, 성찬이 갖는 본질적 의미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의식이며, "나를 기념하라"라고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를 반복하라고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성찬에는 예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고, 재림의 소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전체가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성찬에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참여해야 하며, 성찬을 경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다지기 공동 식사와 관련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는 단순히 배려와 부주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인 거룩함과 사랑을 놓치고 있는 영적 현주소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욕심을 채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교회의 모습은 세상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을 혹독하게 질타하며 철저한 성찰을 권면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모임은 연약한 이들을 배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성찬식 역시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룩한 공동체적 예전으로 거행되어야 합니다.

TIP 리더는 오늘 나눈 말씀이 기도로 마무리되도록 인도합니다. 아래 기도 제목을 1개 혹은 2개 모두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 교회가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 준비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도록

TIP 이렇게 구성원들과 한목소리로 기도한 후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따라 읽으며 마무리하고, 중보기도(함께 기도하기)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배려하며 한마음으로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십자가 언약을 기억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1. 혼전 동거와 혼외 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결혼 관계 안에서 자녀를 낳아 부모가 함께 양육하기를 기뻐하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2. 네팔은 힌두교의 3억 3천 개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네팔인들이 정령 숭배와 주술에서 벗어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합시다(「생명의 삶」 175쪽 '땅끝에서 온 편지' 참조).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마음에 새기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전 11:26

생명의삶 + Plus

발행인 이형기

편집장 김종민
편집 정재연

디자인 공유나

사진 정화영·한치문

광고 강현구·전효정·주설화

정기구독 정재학

잡지영업본부 김한중

발행일 주후 2022년 5월 1일 발행
통권 185호
발행처 (사)두란노서원(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65길 38)
인쇄처 (주)아트프린팅
편집 02-2078-3408~9 **팩스** 070-4275-0235
이메일 qtplus@duranno.com
영업 02-2078-3333
광고 02-2078-3460~3463
정기구독 02-2078-3200
전국지사 부산 051-894-0198 / 제주 064-726-0726
해외지사 오사카 81-06-6170-6802
LA 1-213-382-5400
(http://www.usaduranno.com)
대만 886-2-2931-9066
라틴 57-1-742-6738

「생명의삶+Plus」는 도서잡지 윤리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

「생명의삶+Plus」에 실린 글, 사진, 그림은 「생명의삶+Plus」의 서면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서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본서에 사용한 영어 성경 NASB는 The Lockman Foundation의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Scripture taken from the NEW AMERICAN STANDARD BIBLE®, & copy; Copyright 1960, 1962, 1963, 1968, 1971, 1972, 1973, 1975, 1977, 1995 by The Lockman Foundation Used by permission."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 | 주소변경 신청

02-2078-3200 serve@duranno.com

1년: 150,000원

온라인 입금 계좌

예 금 주 : (사)두란노서원
국민은행 : 803301-04-000914
하나은행 : 573-810030-10905
농 협 : 094-01-154340
우리은행 : 1005-501-106641

구독료 납입 방법

·온라인(국민, 농협, 하나, 우리) 또는 수기카드(국민, BC, 삼성, LG) 또는 자동이체(CMS)로 일시불, 2회 분할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입금 후에는 "꼭"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신청 시, 첫 달은 선발송이나 다음 호부터는 입금 확인 후 발송됩니다.

단체 구독 안내

·단체로 정기구독을 하실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우리교회 QT지 제작 문의 **02-2078-3455**

재구독 혜택

·재구독을 신청하시면 1개월 연장 혜택을 드립니다.
·정기구독 만료일 2개월 전에 재구독 신청하시고 선결제하실 경우 구독료를 3% 할인해 드립니다(단체구독자 및 해외 항공료 제외).

해외 1년 정기구독 안내/ 비행기편

1지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중국	책값 150,000원 우편료 60,000원 **합계 210,000원**
2지역	필리핀, 타일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구 버마),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책값 150,000원 우편료 78,600원 **합계 228,600원**
3지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인디아, 스리랑카, 뉴질랜드, 네팔, 파키스탄, 유럽, 러시아, 중동아시아	책값 150,000원 우편료 99,000원 **합계 249,000원**
4지역	중남미 아메리카, 아프리카, 남태평양 서인도제도	책값 150,000원 우편료 148,800원 **합계 298,800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저희 편집부는 독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 주신 의견들은 더욱 풍성한 「생명의삶+Plus」를 만드는 데 귀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qtplus@duranno.com

생명의삶 Plus 정기구독자를 위한 특별한 혜택

두란노 바이블칼리지 세미나 정가의 최대 20% 할인
- 개강 일주일 전까지 등록 및 입금 시
(※ 일부 세미나 및 중복 할인 제외, 할인 혜택은 정기구독자 본인만 해당)